

Berlitz Israel Ltd.
Head Quarters
Ha'hasmonaim Tower
100 Ha'hasmonaim Str.
P.O.B 20457, Tel Aviv 61203
Tel. (03) 6088670
Fax. (03) 6088677

2017 년 8 월 13 일

관계자에게

회신: 에드워드 스텐(Edward Stern)

에드워드 스텐은 2009 년부터 2017 년까지 벌리츠 버추얼 클래스룸(Berlitz Virtual Classroom)이라 불리는 벌리츠(Berlitz) 온라인 교육부서에서 영어 선생님이 일했습니다.

에디(모두에게 알려진 이름)는 초급부터 고급 단계에까지 다양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개인 교습과 그룹별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본사의 주요 고객들은 주로 기업 비즈니스인 이였기 때문에 에디는 주로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에디는 무엇보다 신뢰가 가는 선생님으로서 2012 년에 리드 교사로 승진이 되었고 다른 강사진에게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역할을 1 년 동안 수행하다가 그 후 영어 교습 법 개발을 집중하기 위해 다시 영어 선생님이 일했습니다.

에디는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업을 학생들에게 맞춤화 하는 능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특히, 영어 학습자들에게 추가적인 영어 기술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 개인 맞춤화가 필요한 학생들을 에디에게 자신 있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만족했고 우리도 에디가 배우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충족해줄 것이라고 그를 믿고 맡겼습니다.

에디는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다른 강사진과 협력하며 BVC(벌리츠 버추얼 클래스룸)에서 선생님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벤티 와이너(Betsy Winer)
벌리츠 버추얼 클래스룸

벌리츠 유럽지사(Berlitz Europe)
근무일: 일요일-목요일
전화번호: +972-360-88-654
휴대전화: +972-54-6868-253
팩스: +972-360-88-677
이메일: betsy.winer@berlitzeu.com
www.berlitz-virtual-classroom.eu

추천의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황선구 팀장입니다.

저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코스닥시장사업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디 선생님과는 2009년에 처음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벌써 9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네요

근래에는 영어를 배우다가 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영어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에디 선생님과 영어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영어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009년 글로벌시장운영(야간 선물/옵션 운영) 업무를 맡아 일주일에 2번씩 해외 거래소(CME, EUREX)등과 영어로 컨퍼런스 콜을 수행 했는데 개별 단어는 들리지만 각각의 단어로 문장 전체를 구성하고 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리 준비해놓은 스크립트를 읽고 나면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는데 영어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영작하는 과정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대화가 진행되는 회의 중에 영어로 듣고 이해하고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어 다시 영작으로 변환하는 동안 회의는 끝나 버리기 일쑤였지요

그러다 제가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주어 졌습니다.

미국 출장 중에 거래처와 관련자들 앞에서 영문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준비과정에서 큰 걱정을 하게 되었지만 에디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 놓게 됐고 그는 흔쾌히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에디 선생님께 보내고 수정본을 받아서 화상시스템을 통하여 실전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2시간의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 어리버리 한국 아저씨가 미국현지에서 네이티브들을 대상으로 영문 연설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후 저의 영어회화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영어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90%이고 귀와 입이 10%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에디 선생님의 영어 수업은 매우 특별합니다.

무엇보다 수업이 재미있습니다. 지루하게 문장을 반복하여 주입식으로 입과 귀에 언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한국 나이가 벌써 쉰하나 이니 영어 놓을 나이도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재미 없으면 벌써 그만 두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영어수업이 얼마나 흥미 게 진행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의 수업의 특징은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배우기 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활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쌈을 싸 먹으면 더 맛있고 많이 먹듯이 쌈 싸여진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과 나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영어회화의 90%는 성공한 것이라고 자신 합니다.

모쪼록 에디 선생님의 특별한 영어 수업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면 영어와 그의 재치와 유머 그리고 서양의 역사가 덩으로 머리에 들어 옵니다.